

국제대회 그리고 산업보건전문가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 **강 성 규**

내년, 2015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열린다. 한국의 산업보건은 지난 2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발전 배경에는 그동안 외국의 산업보건에서 이미 겪어온 경험과 지식을 논문이나 학회 참가 등 학술활동을 통해 배웠으며 성장한 것에 있다. 이제 한국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수준이 세계인에게 도움이 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산업보건관련 학회가 열린 사례는 많지 않다. 1979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아시아산업보건대회, 1998년 생물학적모니터링 학회, 2005년 직업성신경독성학회, 2008년 직업성독성학회, 2011년 사고와 손상학회, 2013년 근골격계학회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산업보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가하여 시차로 인한 졸음을 참아가며 발표를 듣거나 자기 연구결과물을 발표해야만 했다. 자연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외국 학회에 참가할 경제적 능력(또는 기관의 지원), 영어발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주어졌다. 다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듣고 전달해주는 간접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문성이 높은 학술대회이다.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시작된 것은 1906년이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스위스 관통 터널공사의 직업병 예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기념 대회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19세기 후반 기계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터널굴착기계도 개발되었다. 그 기술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스위스 터널(고타드 터널)에 사용되었다. 공기식 드릴과 발파작업을 이용한 스위스 터널공사에서 신기술의 도입으로 작업도 빠르게 되었고 안전사고도 많이 감소했지만 직업병으로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다. 기생충 감염만으로 169명이 사망했다.

20년이 지난 후에 건설된, 두 번째 터널인 심플론 터널 공사에서는 유압식 드릴을 사용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 검진을 실시하여 산재사망자를 106명으로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물론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의 산재

사망이지만 당시에 보면 획기적이었다. 이러한 직업병 및 산재사고 예방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유럽의 산업보건 관계자들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것이 1906년에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이다.

첫 대회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12개국의 전문가 285명이 참가하였다. 의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기업가, 공장책임자 및 이탈리아 지역의 시장들이 참석하였다. 첫 대회를 밀라노에서 열게 된 것은 당시 이 지역에서 이미 두 권의 산업보건전문지가 발간될 정도로 산업보건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2회 대회는 1910년에 벨기에의 브뤼셀 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간 중을 제외하고 1948년 제9회 런던대회 이후 매 3년마다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60년에는 처음으로 유럽 외 지역인 뉴욕에서 개최되었고, 1969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동경에서, 1978년에는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의 드브로브니크, 1981년에는 아프리카 최초로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대륙을 순환해가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29회 대회에서 호주의 멜버른과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제치고 2015년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국제산업보건대회에는 통상 외국인 1,500~2,000명, 자국민이 1,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이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는 1969년 동경, 2000년 싱가포르에서만 개최됐다. 주로 유럽과 미주대륙에서 개최되어 한국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으로 가야만 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36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 등으로 100~300여 명이 참가하는 소규모의 학회를 개최하고 3년에 한 번씩 모두 모여 종합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국제산업보건대회이다. 분과위원회는 유해요인, 건강영향, 업종별, 전문분야별, 사회심리분야별로 구분할 수 있다.

유해요인분야에서는 산업독성, 중금속중독, 실내공기오염, 유기분진, 소음진동, 직업성 방사선, 온도분과위원회, 나노독성위원회가 있다.

건강영향분야에서는 신경독성(NeuroTox), 직업성피부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독성, 직업성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생식독성, 작업과 시각, 산업역학분과위원회(EPICOH)가 있다. 업종별 분야에서는 화학공장 산업보건(MedChem), 건설업산업보건, 의료산업보건, 농업보건분과위원회, 광산분과위원회가 있다. 사회심리분야에서는 고령근로자, 작업조직 및 직무스트레스, 교대근무 및 작업시간, 실업과 건강, 장애 예방 및 중재, 산업보건서비스연구 및 평가,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형근로, 산업보건과 개발, 산업보건의 교육과 수련분과위원회가 있다. 전문분야별로는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SCOHN), 근골격계질환(PREMUS), 산업안전(사고와 손상), 산업보건역사,

여성근로자건강분과위원회가 있다.

분과위원회의 분야를 보면 산업보건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각 분야는 이 시대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학회를 잘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참석만 해도 새로운 지식을 저절로 축적할 수 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산업보건 전문 학회처럼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ICOH(국제산업보건위원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ICOH 회원으로 가입해서 3년 단위의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되어 모든 대회의 참가비를 할인 받고 회원으로서 회장단 선출, 학회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져 학회 방향 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회비의 일부는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학회나 대회 기관에서 주는 개발도상국 지원 혜택을 받아 학회를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회원은 약 2,000명으로 유럽과 미주대륙, 일본의 산업보건전문가들이 많이 가입해 있고, 국내 회원은 아직 30여 명으로 우리의 산업보건 수준에 비해 적은 숫자이다.

이제 한국은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한국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그간 선진국의 경험을 배워 성장하면서 스스로도 많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이제 한국의 산업보건 전문가들도 당연히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학회에, 회원 가입은 하지 않고 대회에만 참가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기만 하는 태도는 참다운 전문가(Professional)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회원들이 운영하는 학회에 참가하려면 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전문가다운 자세이다. 2015년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의 많은 산업보건 전문가가 ICOH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2015년에는 외국 여행의 경제적 부담, 언어소통의 불편함(중요한 세션은 한국어 동시통역이 예정되어 있다)이 없이 자국에서 편하게 세계의 석학들이 발표하는 산업보건 분야의 최신 지식, 경험 등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산업보건 관계자들이 많이 참가해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비는 외부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등록비로 충당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이라고 해서 등록비를 할인해 주는 예도 없다. 개발도상국 참가자에게만 등록비 할인이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그간 한국에서 개최된 일부 국제학회에서는 한국인의 등록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경비가 더 많이 드는 외국인 참가자가 혜택이 더 많은 내국인 참가자의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모양새가 된다.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더 이상 내국인 할인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한국인 참가자들도 외국인 참가자와 같은 등록비를 흔쾌히 내야 하는 이유이다. ☺